

# 오클랜드 성 김대건 한인 천주교회

ST. ANDREW KIM KOREAN CATHOLIC CHURCH

6226 CAMDEN ST. OAKLAND, CA 94605 WEB WWW.OAKCC.ORG

주임신부 Fr. Dominic Kim 김도미니코(광군) (510) 562-3843 사무실 (510) 553-9434 Fax (510) 639-4842  
 사목회장 Lay council chair 게토마스(성일) (510) 589-3311 standrewoak@gmail.com  
 thmschae@yahoo.com 대건회관 (510) 562-8107

미사	주일 미사	오전 8:00 오전 11:00 영어미사 12시 30분	성사	고백 성사	미사 30분전	예비자 교리	주일 오전 9:30(106회의실) 목요일 저녁미사 후(대건회관)
	평일 미사	수,금,토 오전7:30 화,목 오후7:30		유아 세례	2주일 전 신청		
신심	성 시간	매월 첫 목요일 저녁 7시 30분	지속적인 성체조배	병자 성사 봉 성 체	2주일 전 신청	통신교리 - 전화문의	
	성령 기도회	매주 토요일 미사 후 (대건회관)		혼배 성사	3개월 전 신청		
	향심 기도회	매주 목요일 오후 8시(107회의실)		매월 첫 금 9 PM ~ 토 7 AM			
	하느님의 뜻영성	매주 목요일 오후 8시(103회의실)					
주일 학교		매주일 오전 11:00-12:15	한국학교	토요일 오전 9:40-12:40			



**[제 1독서]** 창세 18,20-32  
**[화답송]** 시편 138(137),1과 2-2과 2과 3.6-7과 4.7-8,(◎ 3과 참조)  
 ◎ 주님, 제가 부르짖던 날, 당신은 응답하셨나이다.  
 ○ 주님, 제 마음 다하여 당신을 찬송하나이다.  
 제 입의 말씀을 들어 주시기에, 천사들 앞에서 찬미 노래 부르나이다.  
 거룩한 성전 앞에 엎드리나이다.◎  
 ○ 당신은 자애롭고 진실하시니, 당신 이름 찬송하나이다.  
 제가 부르짖던 날, 당신이 응답하시고, 저를 당당하게 세우시니,  
 제 영혼에 힘이 솟았나이다.◎  
 ○ 주님은 높이 계셔도 낮은 이를 굽어보시고, 멀리서도 교만한 자를  
 알아보시나이다. 제가 고난의 길을 걷는다 해도, 원수들의 분노 막아  
 저를 살리시나이다. 당신은 손을 뻗치시나이다.◎  
 ○ 주님은 오른손으로 저를 구하시나이다.  
 나를 위하여 모든 것을 이루시리라! 주님, 당신 자애는 영원하시옵니다.  
 당신 손수 빛으신 것들 저버리지 마소서.◎

**[제 2독서]** 콜로 2, 12-14  
**[복음 환호송]** 로마 8, 15 참조  
 ◎ 알렐루야.  
 ○ 우리는 성령을 받아 하느님의 자녀가 되었네.  
 이 성령의 힘으로 우리가 하느님께 "아빠! 아버지!" 하고 외치네.◎  
**[복음]** 루카 11, 1-13

성가	8시 미사	입당 34	봉헌 -	성체 175 182	파견 24
	11시 미사	입당 34	봉헌 주님 믿나이다	성체 175 182	파견 24

## 주일 전례 봉사

구분	연중 제 17주일(7월 28일)		연중 제 18주일(8월 4일)		연중 제 19주일(8월 11일)	
	8시	교중미사	8시	교중미사	8시	교중미사
미사해설	임루카(승원)	황테레사(혜정)	정스텔라(애리)	권미카엘(창모)	김글라라(순희)	전베로니카(진영)
제 1 독서	최분도(환준)	최다니엘(대연)	김안드레아(찬곤)	허라우렌시오(순구)	이바오로(명국)	이베드로(기만)
제 2 독서	허세실리아(홍숙)	김테레사(승희)	김글라라(순희)	허파비올라(옥진)	정스텔라(애리)	이골롬바(정연)
보편지향기도	독서자		독서자		독서자	

오늘의 강론

주님의 기도

드디어 옐로우스톤에 다녀왔습니다. 그동안 여러 사람으로부터 무슨 일이 있어도 미국에 있으면서 옐로우스톤은 꼭 한번 가보아야 할 곳이라고 여러 차례 권유를 받았었는데 이번에 어렵사리 결심을 하고 다녀오게 되었습니다. 옐로우스톤을 보고 느낀 감동은 한 마디로 웅장함과 아름다움과 신비함입니다. 그러나 가장 인상적인 것은 옐로우스톤은 여전히 살아 숨 쉬고 있다는 점입니다. 이 자리가 옐로우스톤을 소개하는 자리가 아니기에 이 정도에서 접습니다만 ‘백문이 불여일견’ 이라고 꼭 한번 방문해 보시길 권하고 싶습니다. 제가 오늘 드리고 싶은 말씀의 주제는 사실 따로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기도에 관한 것입니다. 저는 이번 여행에 동행한 두 형제와 매일 아침마다 미사를 봉헌했는데, 참으로 은혜로웠습니다. 하루를 미사로 시작하며 주님께 모두 맡겨 드리며, 주님을 향한 감사의 마음이 더욱 충만해짐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미사는 다 똑같은 미사인데, 왜 이렇게 더 은혜롭고 감사하는 마음이 절실하게 느껴지는 것일까? 그것은 아마도 마음가짐 때문이 아니었을까? 라고 감히 추측해 봅니다. 아무튼 미사의 은혜를 특별히 느끼는 소중한 시간이었습니다.

오늘 복음에서 제자 중 어떤 사람이 “주님, 요한이 자기 제자들에게 가르쳐 준 것처럼 저희에게도 기도하는 것을 가르쳐 주십시오.” (루카11,1)라고 간청을 합니다. 예나 지금이나 기도는 참 부담스럽고 어렵게만 느껴집니다. 도대체 어떻게 기도하는 것이 좋을지 확신이 안 설 때가 많습니다. 가끔 교우들께 기도를 부탁하면 매우 부담스러워하며, 기도하길 거절할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의 이런 태도는 기도를 제대로 알지 못하고 또 기도하는 습관을 제대로 갖지 못한 때문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사실 기도는 하느님과 나누는 진지한 대화이며, 숨 쉬는 것과 같습니다. 우리가 의식하지 못하는 사이에도 끊임없이 숨을 쉬듯이 기도는 주님과 함께 살고 있다는 것을 의식하며 그분과 일치하려는 의식적이고, 무의식적인 노력입니다. 기도를 가르쳐 달라는 제자의 간청에 예수님께서서는 주

님의 기도를 가르쳐 주십니다. 주님의 기도는 가장 완벽한 기도로 알려져 있는데, 하느님을 향한 기도 구절과 사람을 위한 일곱 구절의 기도는 우리가 어떻게 기도해야 하는지를 확실히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더 중요한 것은 우리가 주님의 기도를 아느냐 모르느냐가 아니라 얼마나 자주 그 뜻을 생각하며 정성껏 기도를 바치느냐 하는 것과 그 기도를 이루기 위해서 우리가 구체적으로 어떻게 해야 하는지를 깨달아서 기도가 삶이되고, 삶이 기도가 되도록 해야 하지 않을까라는 반성을 해봅니다.

어떤 분이 주님의 기도를 묵상한 글을 남겼는데, 혹시 여러분께 도움이 될까하여 여기 소개해 봅니다. 당신이 만약 세상의 것들만 생각하고 있다면 “하늘에 계신” 이라고 말하지 마십시오. 당신이 이기주의 속에 혼자 떨어져 살고 있다면 “우리” 라고 말하지 마십시오. 당신이 매일 아들로서 처신하지 않는다면 “아버지” 라고 부르지 마십시오. 당신이 그분을 경배하지 않는다면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빛나시며” 라고 말하지 마십시오. 당신이 그분과 물질적인 성취를 혼동하고 있다면 “아버지의 나라가 오시며” 라고 말하지 마십시오. 그분의 뜻을 고통스러울 때 받아들이지 않는다면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소서.” 라고 기도하지 마십시오. 약도 집도 없이, 직장도 미래도 없이 굶주리는 사람들을 걱정하지 않는다면 “오늘 저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라고 말하지 마십시오. 당신의 형제에 대해 한을 품고 있다면 “저희 죄를 용서하시고” 라고 말하지 마십시오. 당신이 죄짓기를 계속하려는 마음을 가지고 있다면 “저희를 유혹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라고 말하지 마십시오. 단호하게 악을 반대하는 편에 서지 않는다면 “악에서 구하소서.” 라고 말하지 마십시오. 주님의 기도의 말씀을 진지하게 생활하고 있지 않다면 “아멘” 이라고 말하지 마십시오.

주님께서 직접 가르쳐주신 주님의 기도를 정성껏 바치고 실천에 옮기시다. 아멘.

생명의 말씀

우리는 기도를 할 수 있어 행복합니다.

오래전 본당의 한 청년이 저를 찾아왔습니다. 그는 학창시절 공부를 잘해 좋은 대학을 졸업하고, 국내 기업 중 손꼽히는 곳에 들어가 순탄하게 사회생활을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부터인가 우울증이 그를 찾아왔습니다.

병세의 악화와 호전을 반복하던 그는 결국 상태가 나빠져 직장을 그만두게 되었고, 대인 관계마저 힘들어져 사람들과 거의 만나지 않게 되었습니다. 우울증으로 고통스러워하던 그는 그때부터 몇 년 동안 하루도 빠짐없이 기도를 했습니다. 자신의 병을 고쳐달라고 말입니다.

하지만 병은 잘 낫지 않았습니다. 그는 기도에 대한 응답이 없어 실망한 나머지 신앙과 멀어지기도 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우연히 성경을 읽다가 깨달음을 얻어 그때부터 기도의 내용을 바꾸었다고 합니다.

‘주님! 제 병이 낫지 않아도 좋습니다. 그 병을 극복하는 힘을 주세요.’ 라고 말입니다. 그동안의 이야기를 들려주던 청년은 웃으며 말했습니다. “신부님, 기도 내용을 바꾼 이후로 저는 몸과 정신이 많이 좋아졌습니다. 이렇게 신부님께 찾아올 수 있는 용기도 생겼습니다. 다시 나빠질 수도 있지만 주님이 힘을 주시면 저는 견딜 것입니다.” 짧은 만남이었지만 오래 기억되는 만남이었습니다. 그 청년을 만나고 나서 저는 믿음이란 무엇인지, 기도란 무엇인지 많이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복음에서 주님은 기도의 방법에 대해 말씀하십니다. “저희에게 잘못된 모든 이를 저희도 용서하오니, 저희의 죄를 용서하시고, 저희를 유혹에 빠지지 않게 하소서.” (루카 11,4)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이 기도는 신앙인이 지녀야 할 참다운 마음 자세를 말합니다.

하느님께서서는 우리가 바라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좋은 것을 주시는 자비로운 분입니다. 우리에게 매일 필요한 것은 사랑할 수 있는, 진실하게 살 수 있는 일용할 양식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청해야 할 것은 바로 ‘사랑’ 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하느님의 뜻대로 서로 사랑하기 위해서는 먼저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용서를 받아야 한다는 사실을 깨달아야 합니다. 인간이 고통을 당하면 하느님께 매달리며 기도를 합니다.

그러나 너무 고통스럽고 힘들면 사실 기도조차 할 수 없습니다. 이럴 땐 다른 분들에게 기도를 부탁하는 것이 좋습니

다. 누군가 나를 위해 기도를 하고 있다고 생각하면 위로와 힘을 느끼게 됩니다.

신앙인이란 기도하는 사람입니다. 믿음을 갖고 실망하지 않고 계속 기도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오늘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청하여라, 너희에게 주실 것이다. 찾아라, 너희가 얻을 것이다. 문을 두드려라, 너희에게 열릴 것이다.” (루카 11,9)

이처럼 기도는 믿음의 행위입니다. 우리는 어떠한 극한 상황이라도 마지막까지 희망을 두고 자신의 모든 것을 맡길 수 있는 분이 계시다는 사실에 행복합니다.

명동 지하성당 입구에 걸린 문구가 우리에게 큰 위로가 됩니다.

“왜 걱정하십니까? 기도할 수 있는데...”

허영엽 마티아 신부  
교구장 비서실 수석비서



당신을 빛는 순간까지 당신을 믿습니다.  
당신 집에 이르는 순간까지 당신께 희망을 둡니다.  
영원히 사랑하는 그 순간까지 당신을 사랑합니다.

글\_요한 미하엘 자일러 / 그림\_구민정 엘리사벳

말씀의 향기

인호야, 나오너라.

지난 5년 동안 제게 큰 위안이 되었던 것은 성경의 말씀이었습니다. 그중에서도 항상 마음에 떠오르는 장면은 죽은 라자로를 살리는 주님의 모습입니다. 오빠 라자로가 앓고 있다고 누이들이 사람을 보내어 예수께 아뢰자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그 병은 죽을 병이 아니다. 그것으로 오히려 하느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하느님의 아들도 영광을 받게 될 것이다.” (요한 11,4) 라자로가 죽은 후 예수께서는 ‘그가 잠들어 있으니 내가 가서 깨워야겠다.’ 라고 말씀하시고 베다니아 동네에 이르십니다.

이미 죽은 지 나흘이 되었다고 마리아와 사람들이 우는 것을 보시자 ‘예수께서는 눈물을 흘리십니다.’ 아아, 눈물을 흘리십니다. 하느님께서 라자로를 위해 비통한 심정으로 우셨습니다.

그리고 무덤으로 가서 ‘돌을 치우라’ 고 하십니다. 마르타가, ‘죽은 지 나흘이 되어서 벌써 냄새가 납니다.’ 라고 말하자 주님은 하늘을 우러러보시며 기도를 하신 후 ‘라자로야, 나오너라.’ 하고 외치십니다. 외치십니다. 아아, 주님께서 저를 향해 눈물을 흘리시고 우시며 ‘최인호야, 나오너라.’ 라고 외치십니다.

지금 이 순간, 바로 이곳에서 말입니다. 지금 이 순간 병상에 누워계신 환자 여러분, 바로 이곳에서 온갖 고통과 어려움으로 신음을 하고 있는 내 다정한 이웃 여러분. 주님의 말씀대로 우리를 죽일 병은 없습니다.

감히 바이러스가, 암세포가 사람을 죽이지는 못합니다. 우리를 죽일 수 있는 것은 ‘참새 한 마리도 하느님께서 허락치 않으시면 땅에 떨어지지 않듯이’ (마태10,29 참조) 오직 하느님뿐이십니다. 설혹 우리가 죽는다고 해도 그것은 주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잠든 것에 불과합니다. 주님께서서는 우리를 깨워 주실 것입니다.

우리를 죽이는 것은 육체를 강한 무기로 삼고 있는 악입니다. 절망, 쾌락, 폭력, 중독, 부패, 전쟁, 탐욕, 거짓과 같은 어둠이 우리의 육체뿐 아니라 영혼까지 한꺼번에 죽이는 것입니다. 악은 죽음을 담보로 산 사람을 스스로의 동굴에 가두고 살아 있음에도 불구하고 냄새를 풍기는 산송장으로 만들고 있습니다.

우리는 깨어나야 합니다. 깨어나서 동굴 밖으로 나가야 합니다. 성직자다운 의사들과 간호사들은 힘을 합쳐서 어두운 동굴 문을 막은 돌을 치워줄 것입니다.

주님은 동굴 안으로 들어와 제 손을 잡아 일으킬 수는 없습니다. 일어서서 동굴 밖으로 나가는 것은 우리들의 몫입니다. 우리들이 눈을 뜨기 위해서는 직접 실로암 연못으로 가서 눈을 씻어야 하고(요한 9,7), 걷기 위해서는 병상에서 요를

걸어두고 일어나야 하는 것(요한 5,8)처럼 말입니다.

라자로를 살린 것은 주님의 말씀을 따라 동굴 밖으로 나온 믿음의 용기 때문인 것입니다. 눈을 뜬 것은 저와 같은 장님이 주님이 아닙니다. 앓은뱅이에서 일어난 것은 우리와 같은 중풍환자이지 주님이 아닙니다.

영화 “빠빠용”의 마지막은 스티브 맥퀸이 야자열매를 실은 부엌자루와 함께 절벽에서 뛰어내려 망망대해를 떠가면서 외치는 장면입니다.

“야, 이 자식들아, 나는 살아 있다.” 우리도 라자로처럼 죽음의 동굴 속에서 ‘손발은 무기력의 벼로 묶이고 얼굴은 우울과 절망의 수건으로 감긴 채’ 누워 있지 말고 동굴 밖으로 나가야 하며, 스티브 맥퀸처럼 섬의 감옥에 갇혀 있지 말고 푸른 바다 위를 뛰어내리며 외쳐야 합니다.

“여보, 나는 살아 있어. 정원아, 윤정아, 이 할아버지는 살아 있다. 사랑한다.”

성 아우구스티누스는 말했습니다. “과거는 주님의 자비에 맡기고, 현재는 주님의 사랑에 맡기고, 내일은 주님의 섭리에 맡겨라.” 우리의 의지로 헤엄치려 하지 말고 온전히 주님의 자비와 사랑과 섭리에 맡기면 주님의 파도가 우리를 신대륙으로 이끌어 영원한 생명의 나라에 이르게 할 것입니다.(성경 인용은 공동번역 성서입니다.)

최인호 베드로 | 작가

**머무름**

선임 교황님들의 교도권과 조화를 이루고  
가톨릭 교회의 주교들과 일치하여,

저는 안락사가 하느님 법에 대한 중대한 위반임을  
확인하는 바입니다.

그것은 인간에 대한 고의적이고  
용납할 수 없는 살해이기 때문입니다.

교황 요한 바오로 2세의 「생명의 복음」 회칙 65항

가톨릭전례

그리스도 신자 : 성직자, 평신도, 봉헌생활자

1) 구별되지만 하나로 일치되는 하느님 백성

하느님 백성 안에는 성직자, 평신도, 봉헌 생활자라는 신분상의 구별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구별이 상하관계를 뜻하는 것은 아닙니다. 성직자와 평신도가 분명히 구별되지만, 상호 존중하고 협력하면서 예수님께서 맡기신 사명을 수행해 나가는 것입니다. 삼위일체이신 하느님께서 서로 구별되시지만 하나이신 것처럼, 교회의 구성원들도 서로 구별되면서 하나로 일치해야 합니다.

성직자와 평신도의 관계와 관련해서 잘못된 2가지 극단적 태도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성직자의 존재를 무시하는 무교회주의의 방향입니다. 무교회주의자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은 따르지만 성직자의 존재는 부정합니다. 그래서 그들은 1년에 한 번씩 자신들의 모임을 주관할 대표자를 선출합니다. 마치 조기축구회 회장 뽑듯이 말입니다. 그러나 가톨릭 교회는 성직자가 인간적인 절차로 선출되는 것이 아님을 분명히 선언합니다. 예수님께서 손수 12사도를 뽑으셔서 하느님 백성 전체를 돌보도록 사명을 맡겨주셨기 때문입니다.

또 다른 극단은 성직자만을 중시하는 태도입니다. 어떤 본당에서 신부님이 강론 중에 “참된 신자란 어떤 사람입니까?” 하고 물었습니다. 너무 광범위한 질문이기에 다들 머뭇거리고 있는데, 본당 총회장님이 큰소리로 외쳤습니다. “본당 신부님께 순명하는 사람입니다!”

이처럼 우리 가톨릭 교회 안에는 “성직자는 결정하고, 평신도는 그에 따른다”는 식의 일방적 사고방식이 강하게 자리 잡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사도들(그 후계자인 주교와 사제들)을 세우셨지만, 성직자와 평신도가 일방적인 관계로 살기를 바라신 것은 아닙니다. 착한 어린이는 부모님 말씀을 잘 듣는 어린이입니다. 그러나 어른이 되어서도 무조건 부모님 말씀 잘 듣기만 하면 될까요? 부모님께 순명하는 것은 언제나 가져할 태도겠지만, 그 표현 방식은 아이 때와 어른이 되었을 때 달라져야 합니다. 어른이 된 자녀는 부모님과 대화하고 의논하고 때로는 의견 다툼도 하면서 협력해 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앞서 예로 들은 신부님의 질문에 이런 대답이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참된 신자란 본당 신부님과 협력하여 그리스도의 사명을 수행하는 사람입니다!”

2) 현대 교회에서 평신도 사도직의 중요성

과거 가톨릭 교회는 “평신도는 세속 일에 파묻혀서 살면서 죄에 물들은 사람들이다. 그러므로 거룩한 교회의 일에 있어서 평신도는 어떠한 역할도 할 수 없다. 성직자들에게 순명

하기만 하면 된다”는 식으로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현대 교회는 다르게 생각합니다. “평신도들은 세상 일을 하며 산다. 바로 그 때문에 평신도들의 협력 없이는 교회가 자기 사명을 수행할 수 없다.”

그리스도의 구원 활동은 인간 구원을 그 목적으로 하며 모든 현세 질서의 개선도 포함한다. 따라서 교회의 사명도 그리스도의 복음과 은총을 사람들에게 가져다 줄 뿐 아니라, 현세 질서에 복음 정신을 침투시켜 그 질서를 완성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평신도들은 교회의 이상을 수행하며, 교회와 세상 안에서, 영적 질서와 현세 질서 안에서 자신의 사도직을 이행한다(평신도교령 #5항).

3) 평신도 사도직의 분야

평신도들은 어느 분야에서, 어떤 활동을 하면서 성직자들과 협력할 수 있을까요? 그 첫번째 분야는 교회 공동체 안에서입니다. 전례에서 역할을 수행하고, 교리교육을 담당하고, 선교 활동의 임무를 수행하며, 교회의 재산 관리에도 도움을 줍니다.

그러나 평신도들의 진가가 발휘되는 분야, 평신도들이 아니면 할 수 없는 분야는 사회 분야입니다. 사회 분야의 사도직, 곧 자기가 살고 있는 공동체의 정신, 풍습, 법률, 구조 등을 그리스도 정신으로 충만하게 하는 노력은 결코 다른 사람이 제대로 수행할 수 없는 평신도들의 의무이며 책임입니다. 바로 여기에서 평신도들은 삶의 증거를 말씀의 증언으로 완성합니다. 노동, 직업, 연구, 거주, 여가, 단체의 영역에서 평신도들은 동료들을 더욱 적절하게 도와 줄 수 있습니다(평신도교령 #10항).

그런데 현재 우리 교회에서는 평신도 사도직을 교회 울타리 안에서만 하는 것으로 생각하는 경향이 너무 강합니다. 평신도들이 복음 정신으로 불타올라 마치 반죽을 부풀게 하는 누룩처럼 세상 안에서 사도직을 수행하기를 고대합니다.

강신모 프란치스코신부/인천교구 선교사목국장

**- 성 정아상 바오로 트리야벨리 안인선주교의 -**

**주임신부 Fr. Thaddeus Kim 김타데오(선류) (925) 600-0188/사무실 (925) 600-0177**

Pleasanton Middle School, Multi-Purpose Room

5001 Case Ave. Pleasanton, CA 94566

◆ 미사 안내 : 매주 주일 아침 9시/수 & 토요일 아침 9시 30분

날짜	지향	봉헌자
7월 28일 일	연 김중화	정데레사(혜경)
	연 이성원	정데레사(혜경)
	연 정벤자민(대업)	정데레사(혜경)
	연 이마르코(재상)	가족
	연 정아네스	가족
	연 윤바오로(광의)	윤사비나
	연 윤바오로(광의)	정데레사(혜경)
	연 임그레고리오(재선)	가족
	연 이마리아(명자)	이요셉(건용)
	연 이마리아(명자)	송수산나
	연 고아오스딩(정기)	황안나
	생 정로사(화봉)	익명
	생 한대건안드레아(호종)	한안젤로(동설)
	생 황안나	익명
	생 양마르코/수산나가정	박데레사
	생 한즈카르야/아네스	고안나
	생 김수산나(미나)	김아네스(인영)
7월 30일 화	연 최베드로(휘종)	가족
	생 김그라시아(정옥)	이야고보/카타리나
	생 김수산나(미나)	김아네스(인영)
7월 31일 수	연 부모님	이바오로
	연 이마리아(명자)	이요셉(건용)
	생 김수산나(미나)	김아네스(인영)
8월 1일 목	연 본당선종연령들	선종봉사회
	연 김사비나	채데레사
	생 황안나(정희) 생일	익명
8월 2일 금	연 형제/자매	이바오로
	연 메체도안토니오/린	서데레사
8월 3일 토	연 이베로니카	자녀들
	연 메체도안토니오/린	서데레사
	연 이마리아(수영)	이엘리사벳
	연 서라이문도	서데레사
	연 김도마	김카타리나
	연 이요한	김카타리나
	연 정다니엘	김카타리나
	생 꾸리아 활성화	꾸리아

< 건축헌금 > 목표액 \$300,000  
 \* 약정액 \$311,015.28(185 세대 약정)  
 \* 봉헌액 \$291,545.28

지난주 우리의 정성

< 주일 헌금과 참여인원 >

구분	8시	11시	영어미사	합계
미사참석인원	-	233	26	-
헌 금	\$463	\$1,277	\$49	\$1,789

< 교무금 > \$3,170

양인심(6-7) 정일양(7) 김원덕(6-7) 허은석(5-6)  
 정창희(7) 이진열(7-8) 이병열(7) 황현숙(7-8)  
 정애리(7-8) 전덕천(7-8) 원광희(7-9) 조진행(7)  
 김명환(5-7) 추혜성(4-7) 김종성(6-8)

< 성소후원금 > \$90

허은석(5-6) 정창희(7) 박영실(7-8)

< Bishop's Appeal > \$150

허은석(1-6) 정창희(7) 박영실(7-8)

< 감사헌금 > 김병수 \$200

< 2차 헌금 > \$774.75

< 지붕공사 & 소방설비 공사 헌금>

\* 목표액 \$48,000  
 \* 총 약정 \$52,850  
 \* 총 납입 \$50,750

\* 지난 주 약정해 주신 분

김미라, 최응일, 전완수, 권보미

\* 지난 주 봉헌해 주신 분

김미라, 최응일, 전완수, 문아영, 팽현팔

~~~~ 오늘 간식은 이견용 요셉/비비안나 가정에서 제공해 주셨습니다. ~~~~

2013년 신앙생활 지침 : “주님 저희에게 믿음을  
더하여 주십시오.” (루카 19,5)

- 공 제 사 항 -

◆ 전례안내

8월 1일(목) : 성시간  
8월 3일(토) : 성모성심미사(꾸리아월례회)

◆ 지속적인 성체조배

8월 2일(금) 저녁 9시부터 8월 3일(토) 아침 7시까지

◆ 도미니코 본당 신부님 영명축일이 8월 8일입니다.  
영적선물 봉헌서를 친교실에 비치된 박스에 넣어주십시오.

◆ 모임

- \* 뜨락회(청년모임) : 매주 교중미사 후 201회의실
- \* 평협/사목회의 : 7월 28일(오늘) 교중미사 후 친교실
- \* 장학위원회 : 8월 4일(다음주) 오전 9시 대건회관(# 1)

◆ 대건회 월례회 겸 캠프 오픈

- \* 월례회 : 8월 3일(토) 오후 7시
- \* 캠프오픈 : 8월 2일(금) 오후 5시 - 8월 4일(일) 오전 10시
- \* 장소 : Lake Chabot Regional Park 캠핑장  
9999 Redwood Rd. Castro Valley CA
- \* 문의 : 최대연 다니엘 510-282-2580

◆ 서중부 여성 제 9차 꾸르실료

참가자 : 이경란 베로니카, 윤정점 루시아, 최수영 분다  
\* 참가자와 봉사자를 위한 빨랑카 접수 중  
문의 및 접수 : 이창용 레이몬드 510-688-0157  
\* 참가자를 위한 준비모임 - 8월 4일 교중미사후 107호실  
선배 꾸르실리스파님들의 많은 참석바랍니다.

◆ 장학금 신청 접수(친교실)

신청일시 : 6월 23일 - 8월 11일까지  
문의 : 허석진 프란치스코 510-406-0588  
[ageneheo@hotmail.com](mailto:ageneheo@hotmail.com)

◆ 배데레사 자매님이 권선 글라라 자매님의 생신을 위해  
금일봉을 장학위원회 기금으로 봉헌해 주셨습니다.

◆ 금주부터 매일미사 책을 성물방에서 판매합니다.

또한 운송료로 인해 부득이하게 9월부터는 \$5에 판매할  
예정입니다. 교우분들의 양해를 바랍니다.

7월 구역모임 필리피서 1-2장

|       |             |                             |
|-------|-------------|-----------------------------|
| 1 구역  | 7월28일(일) 6시 | 강시구 안드레아 맥                  |
| 5 구역  | 7월28일(일) 1시 | 송인환 토마스 맥                   |
| 7-2구역 | 7월28일(일)1시반 | Lake Chabot Park            |
| 8 구역  | 7월28일(일) 5시 | 김세록 제랄드 맥                   |
| 10 구역 | 7월28일(일) 4시 | Rossmoor Hillside Clubhouse |

◆ 19차 북가주 성령대회

일시 : 8월 10일(토) 오전 8시 반 ~ 오후 9시  
장소 : 샌프란시스코 성당  
강사 : 김명선 사도요한 신부님(부산교구 성령쇄신봉사회 지도신부)  
참가비 : \$25(점심, 저녁 제공)  
문의 : 성령기도회 or 기도회장 510-684-7207  
\* 버스를 예약하신 분들은 8시까지 성당으로 집결해 주  
십시오.

◆ 가톨릭 성서 모임

- \* 20대 이상 미혼 청년 대상 한국어반, 영어반  
창세기부터 9월에 시작  
문의 : 백승진 미카엘 510-730-1524
- \* 기혼남녀반
  - 월 또는 화 오전반 & 저녁반(창세기)
  - 봉사자 : 조마오로 수녀님
  - 목 또는 금 저녁반(탈출기) : 창세기를 마친 분들에 한함
  - 봉사자 : 본당신부님
  - 문의 및 신청 : 사무실

오늘 주일학교 압동미사

주일학교 등록 : 8월부터

한국학교 등록 안내(2013-2014)

- 개강 : 2013년 9월 7일
- SAT II 한국어 시험반( 8/3, 8/10, 8/17 )
- 특별활동수업 : 소고춤(무용전공 선생님 지도)
- 수업료 : \$300
- 문의 : 정인경 가브리엘라 415-517-3544